새 신앙으로의 초대 10강

2016.10.23
길잡이
정원진 목사

교회의 선교사명과 하나님의 선교

지난 강의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모든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말씀의 선포'(케리그마: Kerygma),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koinonia),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봉사'(디아코니아: diakonia)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예레미야서 17장 7-8절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나무가 건강히 잘 자라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듯이, 크리스천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여기서 설교와 성경공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세끼 밥을 잘 챙겨먹어야 건강해 지듯이, 매주 주일예배에 참해서 설교를 들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만 가지고는 '신앙'이 '인격'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목회자들은 성경공부는 소홀히 하고 설교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성공하지만 양육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는 해놓고도 그들을 바르게 훈련시키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신앙과 인격이 괴리된 비인격적인 신앙인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성경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그쳤지, 성경의 사건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 받고 변화 받지 못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더불어 성경공부에 힘을 쏟아 신앙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어머니 '품' 같은 보금자리,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공동체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첫 번째 동기는 신앙적 이유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회적인 동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동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냉혹한 생존경쟁 속에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교회를 찾을 때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욕구를 충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무명성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무의미성에서 자기 됨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가 저들을 격려해 주고, 저들의 삶에 보람을 의식시켜 주고,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주는 일 등은 중요합니다. 셋째로, 자기 고향과 친족을 떠난 생활로 인해 이민(移民)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소속감을 주고, 서로 형제자매로서의 우애를 나누는 이른바 코이노니아의 역할이 교회의 중요한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이 약속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일에 지치고 삶에 지친, 그래서 상처받고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고, 저들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인 선교공동체

셋째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봉사에 지금보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소금'과 '빛'이라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에 대한 봉사에 힘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지와 확장에만 관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당부를 외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한 예레미야서 17장과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결실을 맺는 것,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나무 스스로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결실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구원을 외면한 채 개인구원만을 강조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전도"(evangelism)에만 치중했지만 현대의 교회는 "선교"(mission)에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교인 숫자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기에,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공룡 교회보다는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4.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

앞에서 말한 "선교"(mission)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교 활동의 유일한 근원임**을 뜻하는 말로, 1952년에 독일의 빌링겐에서 열린 제5차 국제선교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1961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선교이념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

나님의 선교'는 재래의 "하나님--교회--세계"라는 도식을 "하나님-세계--교회"라는 도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려면 재래의 "하나님--교회--세계"라는 도식과 "하나님--세계--교회"라는 바뀐 도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구 분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도 식	하나님 ↓ 계시 ↑ 구원 교 회 ↓ 전도 ↑ 입교 세 계	하나님 ↓ 역사 ↑ 구원 세 계 ↓ 요청 ↑ 응답 교 회
선교의 주체	교회	하나님 자신
선교의 목표	교세 확장	하나님의 공의 실현
교회의 역할	구원의 방주 세상의 지배자	하나님의 선교 도구 하나님의 동역자
교 회 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5. 교회의 선교

20세기 중반까지의 세계 교회의 선교 전략은 '교회의 선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것처럼,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자기 확장을 목표로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러한 신앙 형태는 개인의 체험과 믿음을 우선되는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정의는 간접적인 요구가 됩니다. 이렇듯 교회의 선교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즉 구령사업에 치중하며 교인 확보, 교세 확장에 주력합니다.

6.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새로 발견한 것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이해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재발견, 그리고 '하나님--세계--교회'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선교활동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란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 교회는 마땅히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의 존재 근거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을 세계의 한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소금'의 역할과, 세상 역사에 개입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빛'의 역할이 교회의 중요한 선교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보살피는 일, 훈련하고 조직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일, 또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산 표징의 하나로 항상 자기갱신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교회와 목회 실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또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선교의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 곧 복음화의 대상은 개개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한 인간을 회개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음화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파괴된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개인적, 구조적 죄악으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개인의 인간화 과정, 불의한 사회구조를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구조로 바꾸는 사회구조의 인간화 과정, 인간에 의해 무한히 착취당해 파괴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창조질서 보전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분야와 차원의 구석구석을 깊이 있게 복음화 하여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는 흔히 오해하듯이 '개인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구원이나 사회구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불구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새는 좌우 두 날개를 가져야 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선교'에 기초하여 개인구원에만 치중해 온 그리스도교는 한쪽 날개만을 가진 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번성했어도 세상은 점점 썩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세상은 결국 교회까지 썩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발견은 우리의 잃었던 한쪽 날개를 회복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는 작업입니다. 지금껏 교회가 보지 못했던, 보지 않았던 세계의 여러 문제로 눈을 돌려서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 선교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7. 토의 과제

(1) 우리 교회는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인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모두 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까? "어머니 '품' 같은 보금자리,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인 선교공동체"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일찍이 '교회의 선교' 보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불구로 만들지는 않았나요? 그런 위험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지금 우리 교회는 '서제뜰준비위원회', '새길위원회', '박형규목사기념사업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선교 사업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장 추진할 수 있고 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교 사업들을 제안해 주십시오.